

호법부에도 비구니스님

조계종, 정현 스님 상임감찰에 임명

“호법부 업무도 종무 서비스의 일관이며, 바른 생각 바른 자세로 사실을 잘 살피 업무에 임하겠다.” 2월 27일 이례적으로 비구니 상임감찰로 임명된 정현 스님(사진)은 호법부의 업무를 대 중도 행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정현 스님은 1974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운문사강원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 등을 수료했다. 청도 죽림사 주지, 운문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 동부경찰서 경승실장, 범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중앙위원, 대구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자락으로...”

환수위원회 출범, 日 대사관에 반환요청서 전달

조불련 지지 서한 공개

“일본정부는 강탈해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민족의 품안으로 즉시 반환하라.”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념, 철안·이하 환수위원회)가 3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환수위원회 공동의장 철안 부총장사 주지 스님은 “조선왕조실록은 꼭 반환되어야 할 문화재이며 반환운동을 계기로 많은 문화재들이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3월 1일 조선불교도연맹이 보내온 서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서안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죄악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며 빼앗아간 문화유산을 무조건 전부 반환되어야 한다”고 함께 힘을 모아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범식 이후 환수위원회 공동의장 정념(명칭 월정사 주지, 철안 스님)과 김원웅 환수자문위원장, 노회찬 자문위원은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야마모토 정부참사에게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를 전달했다.



3일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은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촉구하며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했다. 오른쪽부터 철안·정념 스님, 김원웅·노회찬 의원, 손산식 부회장

사진=고영배 기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 데라우치 총독과 동경대 교수 시라토리에 의해 강탈되어 현재 동경대 종합도서관에 <성종실록> 9책, <중종대왕실록> 29책, <선조소경대왕실록> 8책 등 46책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식 기자

종단협 정기이사회 올 사업계획 세우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스님, 이하 종단협)는 3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종단협은 이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개최(4월말)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개최(5월) △제 6

회 6.15 기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6월) △제 7회 8.15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개최(8월) △중국불교수행체협 한국수행단 파견(9월) △제 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참가(10월) △북한동포 요소비로 5천원 지원(연중) △한국문화해방연구소 개사업(연중) △희원종단 소개책자 제작(연중) △훈전교육 및 장묘제도 개선 사업 시행(연중)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매사 최선을 다하세요”

지관 스님, 정동영·이종석·현정은 예방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 정동영 의원과 국회 정각회 회장 이용희 의원, 이타회 회장 윤원호 의원, 김혁규 김두관 강창일 이영호 의원 등 여당 당직자 일행의 예방을 받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지관 스님은 국정운영과 관련한 가르침을 청하는 정 의장 일행에게 “말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다만 최선을 다 하라. 마음을 놓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인사대천명(眞人事待天

命)’의 바른 뜻이다. 오직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3월 2일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국민적 여망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신세계 복원과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3월 3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예방을 받은 지관 스님은 “현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용수 기자

북관대첩비 황해도 개성 제자리로 돌아가



남과 북은 3월 1일 오전 10시 황해도 개성 성군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한·일불교복지협회장 초산 스님과 환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원웅 의원과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남북 인사 150여명과 북관대첩비 되찾기 대책위 김석환 위원장, 조불련 심상진 부위원장 등 북측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관대첩비 인도·인수식’을 가졌다. 사진은 2월 28일 의정부 정문부 장관 묘역에서 거행된 북관대첩비 고유제 모습. 글·사진=박재환 기자

불교생명윤리 정립한다

조계종 상설위원회로 격상, 위원 10명 위촉

조계종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생명과학·윤리 문제에 대해 불교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를 설치했다.

조계종은 3월 2일 불교생명윤리 연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04년 7월부터 진행해 온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불교적 해법과 이를 사회 속에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단행본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를 발간하고,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조계종은 불교학 분야 4명,

전문 분야 4명, 실천 분야 2명 등 총 10명의 연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교학 분야 연구위원으로는 위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을 비롯 고영섭, 김중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우희중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 황상의 서울대의대 교수 등은 전문 분야 연구위원, 이항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과 강남석 생명나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실천 분야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박병영 기자

“주지 인사에 개인인연 작용” 31.8%

조계종 총책모임 ‘화엄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스님 노후복지 90% 찬성...10일 종책토론회

조계종 스님들과 재가자 상당수가 종단의 주지 인사는 인사권자와의 개인 인연(31.8%), 문중배경(25.6%)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합력(21.8%), 포교 능력(13.9%), 불사 능력(4.5%)과 같은 개인적 자질은 주지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중앙종회 총책모임 화엄회(회장 성직)가 지난해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실시한 총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스님들은 노후복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4명(90%)가 찬성인정을 보여 설문을 진행한 화엄회 관계들을 놀라게 했다. 화엄회 운영위원장 광조 스님은 “스님들을 비롯한 중도들은 복지

와 포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런 분야에 대한 총책 개발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바라는 목소리도 두드러졌다.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종단의 대응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61.3%)이 적절하다는 의견(11.6%)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

는 의견(78.1%)이 불필요하다는 의견(13.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선원수좌 중에서도 69.4%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종단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78.5%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화엄회 회장 성직 스님은 “종단 현안 전반에 대한 객관적 중도여

론을 수렴하기 위해 화엄회가 유래 없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종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 한 만큼, 중도들이 원하는 총책의 방향에 맞춰 화엄회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앙종무기관 총무원, 강원 및 교육기관 확인, 선원수좌, 조계종 산하단체 임직원, 교계단체 종사자, 등 불교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539부가 회

수 됐다. 출가자는 378명(70.1%), 재가자는 161명(29.9%)이었고, 응답자는 30~40대가 373명(69.2%)으로 주로 젊은 층이 많았으며 학인과 선원 수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조계종의 조직관리, 재무행정, 인사관리를 전반적으로 다뤘으며, 그동안 민감하면서도 쉽게 대안을 제시 하지 못하던 종단 내부의 현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한편, 화엄회는 3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미래지향적 종단을 설계한다-화엄회 총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설문조사의 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일반 중도들의 종합토론회가 진행된다. (02)515-9351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미래지향적 종단을 설계한다

화엄회 총책 공청회

- 일시 : 불기 2550(2006)년 3월 10일 (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 문의 : (02)515-9351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본 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종단을 설계한다는 취지하에 ‘총책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함께 종단의 여러 총책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제방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0(2006)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화엄회 회장 성직 합장

식 순

1부 개회식
 • 사회 : 성효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 개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인사말 : 성직 스님(화엄회 회장)
 • 경과보고 : 덕문 스님(화엄회 간사)
 • 치사 : 법등 스님(중앙종회의장)
 • 격려사 : 항적 스님(일승회 회장) 원택 스님(금강회 고문)

2부 발표 및 토론회
 • 사회 : 성효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 발표 : 광조 스님(화엄회운영위원장)
 • 토론 : 토진 스님(일승회 대외섭외부장) 도각 스님(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남북교류 위원장) 법진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일법 스님(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황 찬익(총무원 기획처장) 김 응철(중앙승가대 교수)

• 사흘서원
 • 공지사향